



지혜와 지비의 화신들

◇물걸리 절터 보호각속 대좌 하단에 새겨져 있는 다양한 모습의 보살상들.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보호각안에 보존된 불상들과 불대좌

산골 강마을 서정 듬뿍 '정보 자연박물관'

패시기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홍천군 물걸리 절터

되는 높고 굵은 깊어 풀 안에 옛 절터가 있는지 아는 이 드물다. 골짜기를 흘러내린 물결은 마을을 에둘러 가족을 살찌우고, 인심을 풍요케 하니 부지런한 드림취념들은 이 산 저 산을 타고 넘어 천지간 경계를 허문다. 고요한 뒷산인 불대좌 앞에 살포시 앉은 일장지리는 누구의 후신인가. 척양척육(斥羊斥肉)을 외치던 선열의 숨결은 길섶마다 붉은 산딸기로 익어 들짐승들처럼 입맛 거친 동심들을 유혹한다.

타백산맥 서사면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악지방 홍천. 홍천은 황성과 함께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동북방 전역에 1천m 이상의 장중한 산봉우리들이 어깨동무를 하여 숨막히고 외진 산골 오지집으로 보이거나 골안으로 들어서면 들뜨한 신그늘 사이로 수심 깊은 강물이 흐른다. 지금은 중앙고속도로까지 흘러 협준한 산의 고도를 낮추고, 마을의 지형을 바꾸어 감심(江心)에 노니는 각시봉이 만류나 걸출한 인물들이 이 고을에서 태어났다. 얼마 전 월드컵대회에서 4강 신화를 이룩한 태극전사 가운데 해맑은 동안(童顔)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초롱이 이영표 선수도 이 곳 홍천 출신이고 작가 전상두씨도 우리가 찾아가는 내촌면 물걸리 사골이다. 그뿐인가. 물걸리 동정마을은 동학혁명당시 북적(北集)의 주역이었던 농민군 800여명이 이곳을 무대로 격벽을 꿈꾸

다가 뚫다한 한을 후세에 전했고 3 1만세 운동시에는 낫과 호미로 무장한 팔팔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주독립을 외치던 곳이다. 태백산맥을 넘은 운운의 정기가 집중된, 역사롭지 않은 풍수를 지닌 마을이다. 인제 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을 지나 북한강 횡평호와 몸을 쉬기 위해 150km를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홍천강의 옛 이름은 화양강(華陽江). 이 유장한 물결이 있었기에 예로부터 홍천강은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한 수운(水運)이었으며, 그 탓에 내촌면에는 거대한 나무터와 나라의 곡물보관 창고인 동창(東倉)이 있어서 황성과 더불어 도내에서 가장 물결고향이 번성했던 곳이다.

모름지기 제대로 된 답사 공부할 하기 위해서는 윗길 뜻 유적지 한 두 곳만 훑어 둘러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내력을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유적지 탐사는 관광이 아니라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여행이고 그 시대 민중들의 삶과 정신을 만나는 진생재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홍천 일원 역사 이름없는 옛 절터 하나만을 붙들고 찾는 것은 축스럽기만 하고 그 절터에 스민 역사의 숨결과 토질을 전혀히 살필 필요가 있다. 황성군 문내면에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있고, 홍천군 북방면에는 5-10만년 전 것으로 보이는 중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부터 북진의 발관으로 삼았기에 서라벌의 불심이 이 곳에 옮겨 회양리 삼층석탑(보물 제79호), 개석리 4사자삼층석탑(보물 제540호), 회양리 당간지주(보물 제80호) 등 불교 유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온 이곳 물걸리에 석조여래조상(보물 제541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 542호), 불대좌(보물 제543호) 불대좌 및 공배(보물 제 544호), 물걸리 삼층석탑(보물 제 545호) 등 '정보 자연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홍천 지역의 패시기를 일일이 탐험하기에는 알려진 것만을 찾기도 3-4일은 족할 것이나 홍천 지역 대표적 패시지이며 한 눈에 사지 탐험의 즐거움을 만

족할 수 있는 물걸리 절터를 만난다.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기념물 47호로 지정된 물걸리 절터는 통일시대 시대의 홍양사(洪陽寺) 터로 추정되며 명문이 출토된 바 없어 정확한 사명(寺名)도, 사원의 내력도 밝혀진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따서 '홍천 물걸리 절터'라 부르는 것이다. 이름 모를 절터치고는 그 발굴된 유적들의 규모나 수준면에서 더할 수 없는 애증을 불러 일으키기에 물걸리 절터의 한 없는 매력을 느낀다. 물걸리 절터야말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나 깊이 있고 소박한 강원도의 인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물걸리 절터는 발견된 문화재의 규모나 주변 산세로 보아 당대에는 홍천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대찰로 보여진다. 1967년 민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과 1971년 발굴조사에 나온 5점의 보물급 유적들은 불교미술의 전성기를 이뤘던 통일신라 것답게 그 규모나 기법면에서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다. 특히 전각으로 옮겨진 4점의 성보들은 하나같이 크기의 규모가 압도적일 뿐 아니라 그 조각솜씨 또한 빼어나 산중에서 이런 장중한 보물들을 만나는데 대해 답사 여행의 포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침직한 봉나무가 유달리 많은 옛 절터. 망가진 뒤에도 절 살림은 남부럽지가 않아 보인다. 절 터 옆, 몇 줄기 모를 쫓아놓은 무는 은 옛날에는 연꽃이 병글고 수월관을(水月觀音)이 달빛 수의를 끝낸 연꽃이 엷을성 살고, 앞알이 청포도 익어가는 마을 뒷산은 옛스님네들 108명주 목에 두르고 탁발을 나가는 뒷모습인 듯 싶다. 사지와 사잇길 하나로 경계를 지은 민가 외양간에는 큰 눈을 슬쩍이는 농우(農牛)가 빈 집을 지키며 절 터의 추억을 되새김질하고 있다.



◇물걸리 절터는 발견된 문화재의 규모나 주변 산세로 보아 당대에는 홍천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대찰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은 사명도 불분명한 채 삼층석탑이 외롭게 절터를 지키고 있다.



◇절의 규모를 가늠케 하는 큰 대좌. 깨져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 놓았다.

상 사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듯 사지 관리를 전담하는 사원이 조성되어 굵어진 황화도 밝히고 유물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리 방법인 것 같다. 얼마 전 다녀온 여주 고당사 터의 원국국 사부도(국보 제4호)가 도굴범들에 의해 보개가 훼손되고 탑신도 기울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소식이다. 마청 성원스님(강화 선원사 주지)이 국회에 폐사지 관리대책 입법을 청원 중이라는데, 조속히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국의 유수한 폐사지 성보들의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얼과 역사가 깃든 문화재들을 통해 이장이나 관제부처 지방공무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는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시인·전각복제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경기도 양주 회암사터 편

통일신라 홍양사 터 추정...寺名·내력 불명 삼층석탑만 제자리, 대승사가 절터 관리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크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크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x6판 / 값 3,500원

일타 크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크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祈禱

일타 크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 크스님의 금강경 강철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자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으로 으뜸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침투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크스님의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야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크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참회·참회기도법

맛있는 것을 먹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